

[보도자료] 쿠팡, 외부 전문가 중심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 “최상위 보안 체계 확립한다”

2026. 9. 15.



쿠팡은 15일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왼쪽부터)이성진 쿠팡 전무,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양제열 경희대 교수, 강유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장항배 중앙대 교수, 박민하 쿠팡 전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법·정책·학계 등 외부 최고 전문가로 구성 객관적·전문적 보안 검증 체계 구축
- 정기 회의를 통해 최신 보안 이슈 선제 반영 및 최고 수준의 보안 스탠다드 확립
- 정보보호 강화계획 실효성 검증 및 대외 신뢰 회복에 총력

2026. 09. 15. 서울 - 쿠팡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회사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쿠팡은 위원회를 통해 사내 보안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쿠팡은 15일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왼쪽부터)이성진 쿠팡 전무,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양제열 경희대 교수, 강유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장항배 중앙대 교수, 박민하 쿠팡 전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법률·경영·IT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먼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허성욱 CPO 포럼 회장과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선임됐다. 허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한 ICT 디지털 정책 전문가로 손꼽힌다.

위원으로는 ▲강유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곽진 아주대학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양제열 경희대학교 교수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최신 법과 제도 변화, 보안 위협 동향을 파악하고 회사의 보안 현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쿠팡은 자문 결과를 사내 보안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스탠다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쿠팡은 위원들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고객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활동내용 등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최고 전문가들의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 수용해 보안 체계 개선 활동을 거듭해 갈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